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공보담당관 자장검사 임선휘

전화 031-470-4302 / 팩스 031-470-4270

보도자료
2024. 12. 17.(화)

인터넷 도박 및 가상자산 피싱 사기 관련 1000억원 대 자금세탁 조직 엄단 - 6명 검찰 직접 구속 기소 등 총 7명 기소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는 도박사이트의 1,000억 원대 도박자금을 조직적으로 자금세탁해 주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장한 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사기 피해금을 대포통장 등을 통해 현금으로 자금세탁하여 전달해 온 자금세탁 조직 7명을 기소(구속 6명, 불구속 1명)하였습니다.

- 검찰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장한 피해금 12억원 상당 피싱 사기 혐의, 5천만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피고인들을 송치받아, 51개 계좌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 압수물 및 텔레그램 대화 분석 등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이 피싱 사기 피해금, 도박자금을 세탁해주는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면서, 피고인들 스스로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까지 밝혀 먼저 피고인 5명을 전원 구속하였고,

- 소재불명으로 수사중지되어 있던 공범 1명도 직접 검거하여 추가 구속하였으며,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도박사이트 운영 공범 1명도 추가 입건하여 기소하였습니다.

- 특히,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청소년들까지 도박사이트에 유인하여 도박을 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여 엄단하였습니다.

● 향후에도 검찰은 도박사이트 운영, 피싱 사기 및 자금세탁 범죄와 같은 조직적 범죄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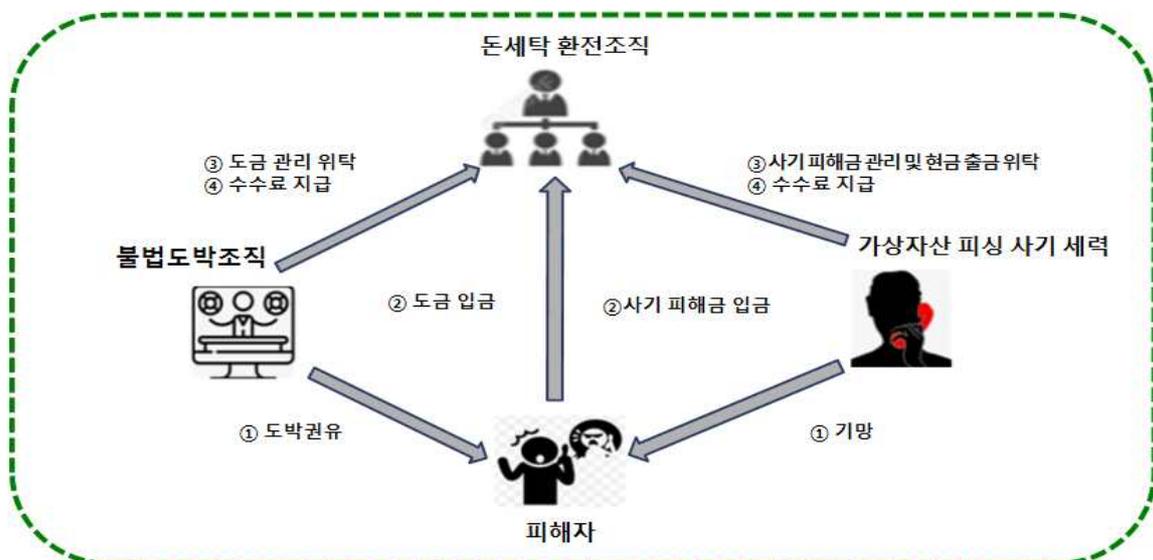
순번	피고인	역할	공소사실 요지
1	A 31세 (검찰 구속)	도박사이트 운영, 가상자산 피싱 사기, 자금세탁 총 책임자	① '22. 5.경부터 '22. 10.경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운영하는 도박자금 약 1,003억을 피고인들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체받고 다시 이를 수익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개설방조, 범죄수익은닉] ② '23.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가장 피싱 사기 세력과 공모하여 피해자 23명으로부터 11억 9천만원을 편취, 40여개 계좌에 나눠 이체한 후 8억 9천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기, 범죄수익은닉]
2	B 31세 (검찰 구속)		
3	C 32세 (검찰 구속)	가상자산 피싱 사기 자금세탁 총 책임자	'23.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가장 피싱 사기 세력과 공모하여 피해자 23명으로부터 11억 9천만원을 편취, 40여개 계좌에 나눠 이체한 후 8억 9천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기, 범죄수익은닉] ※ 수사중지 피고인 소재파악 후 검찰 직접 구속
4	D 26세 (검찰 구속)	A, B, C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공범	① '22. 5.경부터 '22. 10.경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운영하는 도박자금 약 1,003억을 피고인들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체받고 다시 이를 수익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개설방조, 범죄수익은닉] ② '23.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가장 피싱 사기 세력과 공모하여 피해자 23명으로부터 11억 9천만원을 편취, 40여개 계좌에 나눠 이체한 후 8억 9천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기, 범죄수익은닉] ③ '23.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도박사이트 'H'을 운영하고 3,1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
5	E 24세 (검찰 구속)		
6	F 30세 (검찰 구속)		
7	G 34세 (불구속)	B의 지시를 받고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가담한 공범	'23.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도박사이트 'H'를 운영하고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의 연락처를 수집하고 차 명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아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 ※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공범 직접 입건 후 기소

2 주요 수사 경과

- '24. 7. 29. 안양지청에 사건 송치(② 피해금 11.9억 상당의 피싱 사기 가담, ③ 5천만원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 '24. 8.~10. 압수물 분석을 통해, ③범행 이전에도 도박사이트 자금 관리해 준 혐의(①) 확인해 도박공간개설방조, 범죄수익은닉 추가 입건
- '24. 10. 31. 피고인 A, B, D, E 검찰 직접 구속
- '24. 11. 4. ①범행 규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계좌 압수수색
 ※ 자금 추적을 통해 도박사이트 입금 규모가 약 1,003억 원에 이르고, 그 중 약 990억원의 범죄수익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차명 이체해 주어 은닉한 사실 확인
- '24. 11. 19. 피고인 A, B, D, E 구속 기소
- '24. 11. 25. 피고인 C, F 검찰 직접 구속
- '24. 11. 26. 피고인 G 입건
- '24. 12. 12. 피고인 C, F 구속기소, G 불구속 기소

3 수사 결과 및 의의

① 본건 범행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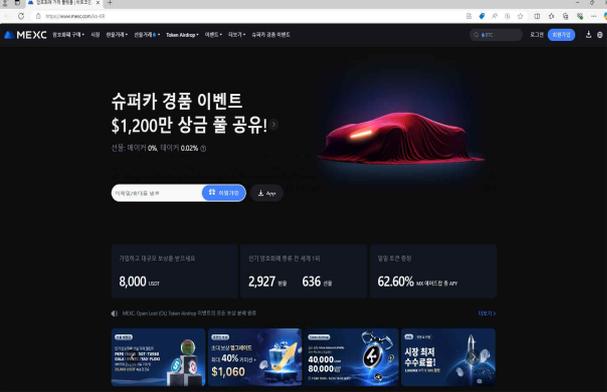
-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도박자금을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이를 다시 유령 법인 명의 계좌들로 이체해 돈세탁을 하는 방법으로, 1,000억 원대의 도박자금을 전문적으로 세탁을 해 온 것으로 밝혀짐





도박 사이트 홍보용 팝업
도박사이트(sg-666.com) 접속 화면

- [가상자산 피싱 사기] 이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장한 피싱 사기범이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1억 9천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계좌로 받은 사기 피해금을 약 40여 개의 계좌로 분산 이체한 다음 현금 인출하여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피싱 사기범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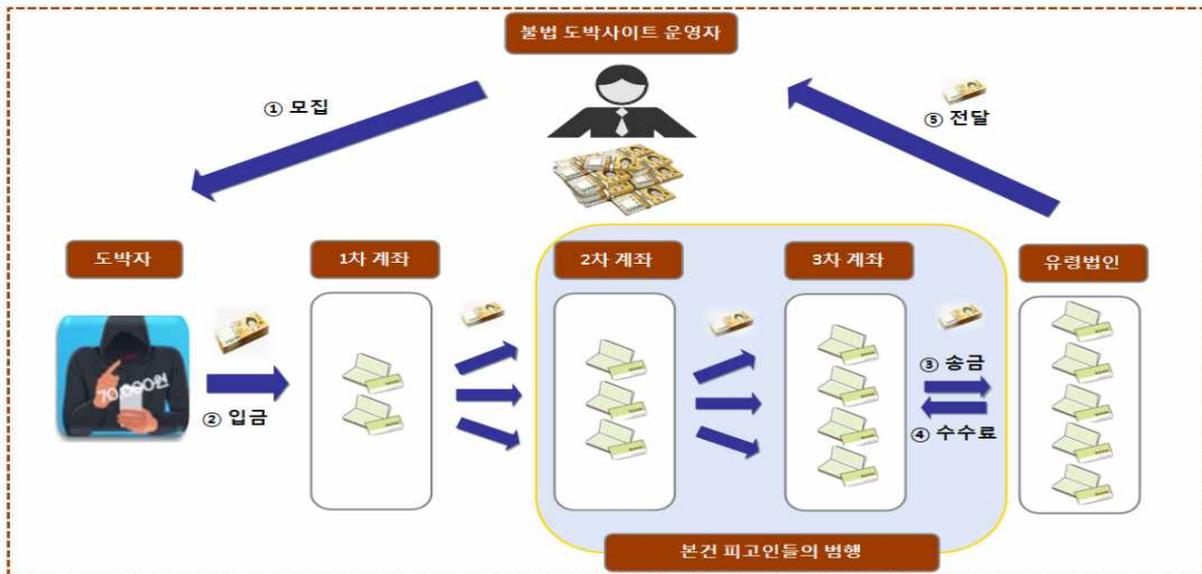


실제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
피싱사이트(mxvip-k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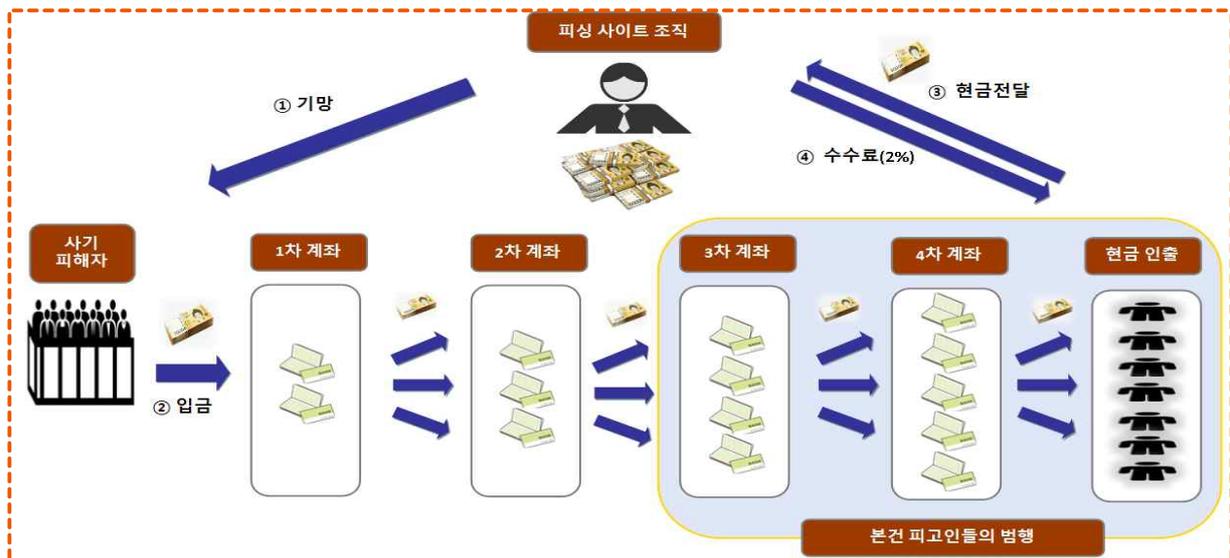
* 피싱사이트는 이미 폐쇄되었으며 수사 당시 촬영 사진임

②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돈세탁을 통해 불법적 이익 취득

- 피고인들은 친·인척 또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싱사기 주범들에게 자금세탁 조직으로 소개될 만큼 전문적으로 자금세탁 영업을 해온 사실 확인
-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자금의 입금 관리 및 유명법인 명의 계좌를 통한 돈세탁을 의뢰받은 뒤 지정된 계좌로 이체해주고 0.6~2%의 수수료 취득



- 또한, 피고인들은 피싱 사기범으로부터 사기 피해금의 돈세탁을 의뢰받아 여러 계좌를 통해 돈세탁 후 현금 인출해 준 뒤 2% 가량의 수수료를 취득



3 구속수사로 청소년들까지 상대로 영업중이던 도박사이트 운영 차단

- 본건 도박사이트 회원명부를 검토한 결과, 중학생인 도박 가입자도 확인되었는데, 피고인들이 청소년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에 나선 사실까지 밝힌 후, 피고인들을 구속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 차단

The image displays two pieces of evidence related to a gambling site investigation. On the left, a chat log shows a conversation where someone suggests promoting the site to high school students. On the right, a text message from a number starting with 00131295934834 is shown, containing promotional text for a gambling site.

고등학교생들의 오픈채팅방에서 도박사이트 홍보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대화 내용

도박사이트 홍보 문자메시지 무작위 배포

4 치밀한 수사로 암장될 수 있었던 사건의 전모를 밝혀냄

-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술을 회피하여, 피고인들 명의 계좌 등 약 51개 계좌분석,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등 물적 증거를 통해 1,000억 원대의 자금세탁 범행의 실체와 범행 전모를 규명함
- 수사중지 상태였던 피고인 C의 소재를 파악하여 직접 구속하여 도박사이트 운영, 피싱 사기 또는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6명을 구속함

4

향후 계획

- 안양지청은 앞으로도 불법 인터넷 도박, 피싱 사기 범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처분하거나 운용하는 자금세탁 범죄에 대하여 엄단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계속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임 